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장애인과 오감교육의 필요성 : 영화 〈천국의 속삭임〉 중심으로

문초비*

본 연구는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천국의 속삭임〉(2009)이라는 영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장애인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 방식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영화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시청하였고, 장애 이미지에 대한 문헌과 학술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한 결과, 영화 속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프란체스카는 미르코를 포함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인관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양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즉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오감 및 행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습득이 자유롭지 못하여 학습 및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된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기회를 범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방식, 즉 오감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학과 석사

교육을 제안하였다. 셋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오감’을 활용한 교육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시각적인 표상이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문답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과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또한 영화 속에 나타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 현장을 분석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술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성과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과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방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데 기여를 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주제어 :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천국의 속삭임, 시각장애, 오감, 교육, 바람직한 장애관

I. 연구의 필요성 및 기존 연구의 한계

영화는 여러 대중 매체 중의 하나로 그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할 수 있게 도와준다(김용임, 2004). 그러므로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한다는 것은 영화가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인식의 구조와 관련이 있으며, 즉 영화는 사회를 사람들에게 재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영화도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사회를 반영하지 않는 영화는 없다(안은자, 윤정란, 조원일, 2020). 또한 영화는 단순히 작가의 개성과 세계관을 표현한 텍스트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다(황인옥, 2010). 텍스트는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이면서 동시에 작가에 의해서 반영되어지고, 그 후에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독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얻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텍스트는 독자들의 해석에 의해서 재구성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화 텍스트에 나와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교육방식과 현실의 교육방식 사이의 간극과 합일의 전이점을 파악하고 모색하고자 한다.

텍스트 분석의 도구가 되는 텍스트에 대한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어렵다(황인옥, 2010). Barthes(1997)은 텍스트를 의미의 생산으로 개념화하였으며, Rosenau(1992)는 어떤 사건이라고 정의 내렸다. 따라서 연구자는 텍스트는 작가에 의해 생산되지만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 작가보다는 독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가 새롭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텍스트는 해석을 위한 도구이며, 영화는 그 자체만으로 텍스트가 될 수 있다(황인옥, 2010). 즉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재현인 영화를 통해서 본 연구 대상인 영화 <천국의 속삭임> 속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적절한 교육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 변화의 메시지를 고찰해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서사구조, 영화의 의미와 상징성, 영화에서 재현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영화를 단순히 수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화를 분석하고 영화 텍스트가 제기하는 문제를 한 사회의 문화적 현실에서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다(박길자, 이미식, 2002). 꽤 오랫동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의료적 모델의 관점에서 멸시와 조롱, 열등감을 받는 대상으로 표현되어지고(이규태, 1981), 조흥중과 전이상(2003)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영화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재현시킴으로써 관객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점(김홍주, 박원희, 2003)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선에서 사회문제화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할 것이다.

국외에서도 영화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Nelson(1994)은 영화에서 지배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연구하였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은 ‘불쌍하고 동정적인’, ‘영웅적인 결심으로 차별에 맞서 싸운 또는 초인적인’, ‘사악하고 불길한’, ‘죽는 것보다 나은’,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장애 자체가 최악적인’, ‘부담스러움’,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등의 7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앞서 언급했던 몇몇 선행연구들(이규태, 1981; 조홍중, 전이상, 2003; 김홍주, 박원희, 2003)과 Nelson(1994)이 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영화가 반영한다면, 영화라는 매체는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므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전달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대부분의 영화에서 보여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재현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받는 교육 방식에도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의 장애 극복서사와 성장을 그리고 있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통하여,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바람직한 이미지와 더불어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진로 교육을 통해 경제·사회 공동체로서의 투입과 자립까지 살펴볼 것이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의 배경은 1970년대 이탈리아이다. 그 당시 이탈리아의 복지유형은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소득비례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었으며(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2012),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에 맞춘 복지가 이슈화되기도 한 시기였다(Girotti, 1998).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언급된 것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특수학교에만 가야하는 법을 폐지한 시기는 1975년이 되어서였다. 이 시기 이탈리아 정부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장애가 없는 아동들과 함께 공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는데, 즉 1975년 이전에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Nelson(1994)가 언급했던 것처럼 ‘적응하지 못하는’,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의 이미지와 Haller(1997)이 제시한 ‘사회 병리적’이며 ‘도움을 원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시작한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만들어내며, 더불어 특별하게 제시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바람직한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 방식을 제안하는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영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방식은 자신의 재능을 알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과 숙제를 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나가는 주인공의 배움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수학교에서 배우는 직조공, 용접공, 전화 교환원 등의 교육 이면에는 ‘무능력은 사회적인 불이익으로서의 장애를 초래한다’는 신념이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는 진정한 교육이란 학습이 자유롭게 탐구되고,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모든 아동은 자신만의 독특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온전한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재능이 표출되는 연속선상에서 특수한 아동, 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있는 것이고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특정 손상이나 무능력이 개인의 삶에 불이익과 불행을 가져다주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학교 수업과 지도 선생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어떤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 외의 다른 기능이나 감각들의 가치와 느낌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현실 가능성이 높은 오감 교육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영화에서 줄리오 선생님은 주인공인 미르코에게 “너에게는 오감이 있는 데 왜 한 가지만 사용하니?”라는 질문을 통해서 시각적인 부분 이외의 다른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 미르코는 자신이 청각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줄리오 선생님은 중도에 시각장애를 가지게 된 미르코의 마음과 정서적인 부분을 이해해주었으며, 미르코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라디오를 제공해주었으며, 점자 배우기를 거부하였을 때 책임감으로 포기하지 않고 점자를 배우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줄리오 선생님은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사계절을 가르칠 때, 단순히 점자로 된 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준비하여 촉각과 청각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러한 촉각적 경험은 본질적으로 시각적 경험과 다르며, 반드시 시각화하는 것도 아니므로(김영린, 2003)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오감’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세상을 배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정기철(2013)은 오감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다섯 개의 감각은 개별적으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을 하고 있다고 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각이라는 감각으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교육에 제한적이지 말아야 한다.

영화는 이러한 몇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로서 본 연구자는 관객들의 정서적인 부분만을 건드려서 단순히 장애가 있음에도 성공을 하였다는 점을 전달하려는 감독의 의도가 아쉽다고 생각된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이 관객들이 바람직한 장애관과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 방식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능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가능성은 열어두었다고 생각된다.

본격적으로 본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장애의 정의, 사회·문화 속에서의 장애 그리고 장애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를 설명하려면 먼저 손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Benedict Ingstad와 Susan Reynolds Whyte(2011)의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에서 “손상(impairment)은 심리학적·생리학적·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성(P. 16)”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지닌 자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판정하는 것에 의해 규정되어 진다(P. 19)”. 이에 비해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연유하며, 인간으로서 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제한이나 결여(P. 19)”로 정의되어 진다. 핸디캡(handicap)이란 “신체기관과 활동 수행에서의 결함으로 인한 사회적 결과와 관련된다. 그리고 손상 또는 장애로부터 연유하며(연령·성 및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는) 정상적인 역할 수행을 제약하거나 가로막는, 어떤 개인에 대한 불이익으로(P. 19)” 정의하고 있다. 즉 ‘장애’는 ‘손상’으로부터 연유하며, ‘핸디캡’은 ‘손상’ 또는 ‘장애’로부터 연유한다. 또한 Colin Barnes, Michael Oliver 그리고 Len Barton(2017)의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에서 장애는 “제한된 활동 그 자체와 동일시되지 않으며(P. 82)”, “손상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인되지 않지만, 그러한 제한들은 장애가 아니다(P. 82)”라고 하였다.

장애와 사회·문화를 살펴보면, Colin Barnes, Michael Oliver 그리고 Len Barton(2017)의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에서 장애는 “사회 전체에 대해 광범위한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갖는, 혼란 개인적 경험이며 지구적 현상이기도 한다. 공인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은 시초부터, 그리고 모든 사회에 존재해 왔다(P. 14)”라고 하였다.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와 사회·문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장애는 “사회학 내에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증가(P. 18)”하였다. 그렇지만 이것이 “각각이 전통적인 ‘장애’ 정체성에서 기인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지만, 어떤 것도 그러한 정체성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에 대하여 진지

하게 문제 제기를 시도하지는 않았다.(P. 19)”

장애의 사회적 해석은 “공인된 손상이나 손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데 사회가 실패함으로써, 직접적인 손상과는 무관하게 그들이 장애화된다고(P. 21)”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손상의 의미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보다는 그러한 손상 위에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장벽에 집중(P. 22)”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이러한 장벽들은 “사회적으로 속성화된 손상을 지닌 사람들을 배제하며 억압을 발생시킨다(P. 72).” 다시 말하자면 장애는 “개인적 결함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성되는 것이고(P. 22)”, “어떤 사회라 할지라도 손상을 지닌 사람들의 일부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P. 34)”은 불가피한 점이다. 이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Oliver(1990)는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장애인이 처하는 사회적 불이익은 사회적 환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경험하는 활동의 제한과 무수히 많은 불합리함이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손상 그 자체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기보다는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결과(P. 75)”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손상을 지닌’ 그리고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전적으로 담론에 의해 구성되고(P. 98)”, “‘결함이 있는’ 몸으로 규정된다는 것은 동시에 충분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없는 것(P. 108)”으로 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은 노동력이 ‘손상’되어 있다는 이유로 산업 생산으로부터 배제되었다(P. 110).” 다시 말하자면 손상이 있는 몸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잉여물에 불과했는지도 모르며(P. 113)”, “직업 등의 영역들에서 개인을 불리하게 만드는 장애는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가치화될 것이고, 따라서 장애를 지닌 개인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열등하다는 오명의 부여, 즉 낙인화라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P. 220).”

결론적으로 “손상은 사회적인 것이고, 장애는 체현된 것(P. 119)”이며 “사회는 신체적(P. 135)”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를 억압의 한 형태로 바라보고자 한다면, 손상을 지닌 사람들이 장애화되지 않는 사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견해(P. 211)”를 밝혀야만 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장애란 “손상을 지닌 개인들에게 중요성을 갖는 노동·운송·여가·교육·가정생활과 같은 기본적인 활동을 사회가 조직해 내는 특정한 방식들로부터 발생하는, 변화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는 역사적 시대들 사이에서만 뿐만 아니라, 각 시대 내의 여러 사회들 간에서도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손상을 지닌 사람들과 사회 사이의 ‘관계’인 것이다(P. 222).” Tom Shakespeare(2006)의 『장애학의 쟁점』에서도 손상은 “보통 개인적인 책임의 문제는 아니다(P. 122)”라고 말하고 있으며, “장벽의 제거나 지원의 제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상은 많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을 것(P. 116)”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와 재현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우충완(2019)과 Rosemarie Garland-Thomson(1997)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먼저 우충완(2019)에 의하면, “문학과 영화에서 재현되는 장애나 장애 인물들이 대개 불행, 비극, 수난 등 부정적인 은유나 상징으로서 도구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장애의 은유나 상징은 지배와 종속의 이분법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교묘하게 공론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반면에 Garland-Thomson(1997)은 영화나 문학 등 여러 대중 매체의 텍스트 안에서 장애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활발히 연구되어질 시기의 주요한 연구자이다. 그는 그의 저서인 『보통이 아닌 몸』에서 “문학적 재현은 현실보다는 개연성, 즉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에 더 의존한다(P. 25)”고 하였다. 즉 “장애를 가진 등장인물들에게 주체성 또는 행위 주체성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 장애 인물을 대상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P. 26)”. 그리하여 문학 또는 영화에서 재현되는 장애 이미지와 담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 재현과 관련된 연구에서 긍정적인 시도로 작용될 것임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장애 인물들을 대하게 되는 경우 문학 비평가들은 흔히 이들을 은유적으로나 미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정치적인 인식 없이 그들을 감상적, 낭만적, 고딕, 또는 괴기적 문학 전통의 관습적 요소로 읽는다(Garland-Thomson, P. 23). 따라서 장애는 오로지 신호하는 시각적 다름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 필연적으로 문학 텍스트는 장애 인물들을 정상화 맥락을 박탈하고 단 하나의 낙인찍힌 특성에 둘러싸인 기형인간들로 만드는 것이다(Garland-Thomson, P. 25).

한편 Benedict Ingstad와 Susan Reynolds Whyte(2011)의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에서 “해석은 사회적 과정인 것(P. 51)”이므로 “장애에 관한 개인적인 내러티브 생산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며 연구물 생산자들과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P. 54)”고 한다. 영화에서는 연구물 생산자들이 감독이 되고, 독자들은 관객들이 되는데 감독이 가지고 있는 장애관이 영화에 담겨지게 되고,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자신들의 주관적인 신념과 관념들로 인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행위자들의 (일차적) 해석을 바탕으로 (이차적) 구성물을 만들어 내는(P. 52)” 것이다. 한편 국외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대중 매체 노출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대중 매체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현된 이미지는 둔함, 무력함, 이기적임, 무식함의 존재로서 표현되어졌다(Donaldson, 1981).

Barnes(1997)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중 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스테레오타입을 ‘불쌍한 사람, 호기심이 많은 사람, 약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우스꽝스러운 사람, 슈퍼 장애인, 주인공의 최악의 적, 부담스러운 사람, 성욕이 결여된 사람, 일생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의 10가

지로 나누었다. 이처럼 대중 매체 속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미지는 주로 동정 받아야 하는 사람, 내러티브의 전개에서 비장애인들을 당황시키는 존재로 표현되었다(강진숙, 김동명, 2019).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격과 욕망을 제거시키고 장애라는 요소만 사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Shakespeare, 1999).

결론적으로 여러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대중 매체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현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주장은 사회적 편견과 낙인이 대중 매체 속에 그대로 투영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강진숙, 김동명, 2019). 그러므로 대다수의 대중 매체 속에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패싱(passing) 양상이 심화되어 있으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올바른 대중 매체의 재현이 필요하다(강진숙, 김동명, 2019).

다음으로는 국내·외 연구현황 및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국내·외 장애연구는 학제 간 연구가 주를 이루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연구자들의 참여가 시작되었다. 그 예로 중요한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을 소개한다. 국외의 경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은 오래된 연구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활동이 활발해진 1980년대부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졌으며(김홍주, 박원희, 2003), 영화, 텔레비전, 문학 등 다양한 대중 매체 속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편견에 대해서 연구되어졌다. 그 연구자들 중 Rosemarie Garland-Thomson(1997)은 『보통이 아닌 몸』에서 과거 문학 속에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재현은 그들의 이미지가 소수집단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도구로써 이용되어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녀는 장애는 문화적 규칙이라고 말하면서, 장애는 형상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며, 사회적 관계와 제도를 이룬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어질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도 그 당시의 이탈리아 사회적 관계와 제도가 드러나 있다. 이탈리아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일반학교에 다니지 못하며, 특수학교에만 다녀야 한다는 법이 존재하였고,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그리고 문화적인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후반부에서는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시위하는 장면과 저항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 이탈리아 정부는 1975년에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특수학교에만 다녀야 한다는 법을 폐지하였다. 이러한 장면은 Garland-Thomson(1997)이 제시했던 장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억압의 저항이자 긍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영화에 비춰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Elliot과 Byrd(1983)는 미국에서 상영된 영화, 문학, 텔레비전에 나온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Longmore(1987)도 몇 십 년간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재현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Nelson(1994)과 Haller(1997) 역시 영화와 텔레비전 등 다양한 대중 매체에서 지배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시각을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재산출하고 있는 결과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외 연구들에 비해 영화와 장애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연구자가 ‘장애인’과 ‘영화’ 2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였을 때, 영화와 장애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작한 영화에 대한 분석이나, 한 두 편의 유명한 영화를 분석한 내용이 대다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외 연구들에 비해 국내 연구들은 영화에만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문학이나 다양한 대중 매체 속에서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는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속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하였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과 사회 공동체로서의 통합까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미정(2000)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변화되어 온 한국 영화 속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연 또는 조연으로 출현한 영화들을 분석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아의식과 사회의 일반적인 차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김홍주와 박원희(2003)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인물이 묘사되는 것에 따라 나름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권명옥과 서화자(2004)는 문학적,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선자(2007)은 영화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코드를 사용하여 영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고, 서진환과 김정은(2015)과 박홍곤(2017)은 영화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수동적이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을 재산출하는 연구 결과들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위의 선행연구자들의 입장과 동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영화 매체의 긍정적인 효과

와 파급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적 영역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교육과 관련한 법적인 지지는 1960~70년대, 제도적인 뒷받침은 1970~8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90년대 와서는 교육 과정에 대한 통합에 관심이 일어났으며(정지훈, 이영미, 2009), 1991년부터 국내 선행연구들이 발견되었다. 시각장애교육 관련 연구 주제의 동향을 정지훈과 이영미(2009)가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교과교육 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선호하는 교과로는 국어와 미술로 나타났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도 줄리오 선생님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직접 촉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계절과 관련된 사물들을 준비하여, 그것을 만져보면서 글을 써 오라고 하였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았을 때,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문학을 가르칠 때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오감교육을 활용해서 국어를 배울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또 하나의 높은 빈도를 보인 주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관련된 주제이다(정지훈, 이영미, 2009). 본 연구에서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중심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방식을 논할 것인데, 앞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에 관련된 연구에 이어서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 효과가 좋은 교육 방식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영화라는 문화적 산물을 분석하므로 연구자가 제안하는 교육 방식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방식 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본 연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상상력을 끄집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계속하여 시각장애교육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민수와 김영일(2010)은 시각장애학교의 개별화교육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박순희(2006)은 시각장애교육 교사의 자질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주인공 미르코를 대하는 줄리오 선생님의 태도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덕순(2010)은 시각장애 학생의 교과교육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통합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미선, 김기창, 김정현, 김호연(2010)의 연구가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1980년 이후부터는 통합교육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70%의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30%만이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박은송과 한성희(2008)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직업은 안마사나 침술사에서 점차 사무

직과 전문직으로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특수학교의 교육과정도 현 시대에 맞춰서 발을 맞추거나 앞서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현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된 서비스는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며, 특히 중도 실명자를 위한 직업교육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장애관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육과정과 방식에 대하여 관심과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나아가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대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해줄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영화 속 장애 재현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편견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영화 <천국의 속삭임>의 주인공처럼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외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 방식을 현 주소에서도 고민하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자 필요가 될 것이다. 강경숙(2009)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해서 가르치는 교수적 수정법을 강조한 바 있으며, 여러 연구들에서도(박순희, 2006; 이해균, 임안수, 이우관, 2006; 김정현, 이태훈, 2003)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개인별로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오혜정, 황도순 그리고 박현옥(2006)도 개인의 잠재 능력과 강점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교육 동향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지훈과 이영미(2009)가 시각장애교육에 대한 연구 주제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과교육에 대한 주제는 25편(18.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오감교육'을 통하여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바람직한 장애관이란 무엇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가?

연구문제 2)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떠한 교육 방식이 적절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천국의 속삭임〉

본 연구는 장애관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방식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보여지는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장애관의 초점이 아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 방식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자료가 되는 영화 텍스트 역시 장애 재현에 있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 이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상영된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천국의 속삭임〉을 통해 장애관과 교육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을 보이는 영화들은 많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 방식까지 다룬 작품은 흔치 않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중심으로 논하려고 한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지만,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 방식으로 인하여 훗날 유명한 음향 감독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2. 영화 〈천국의 속삭임〉 주요 정보

1) 개요

크리스티아노 보르토네 감독의 영화 〈천국의 속삭임〉은 드라마, 가족 영화로 2009년 12월 17일에 개봉하였다. 본 영화는 현존하는 최고의 이탈리아 음향 감독인 미르코 멘카치의 실화에서 출발한 영화이다. 그는 8살의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꿈을 잃지 않고 도전해 전문 뮤지션 겸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다. 미르코는 이탈리아 주요 영화의 사운드 디자인을 맡았으며, 현재 이탈리아 최초의 사운드 재단을 설립했다.

2) 줄거리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본 영화는 우연한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면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삶을 그린 드라마/가족 영화이다. 연구자는 이 영화를 통해 앞서 선행연구들에게 언급한 부정적인 장애관과 획일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교육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장애관이고, 어떤 교육이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적합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소년 미르코 멘카치는 1961년에 태어나 토스카나에서 부모님과 함께 산다. 그는 구

슬치기와 동네 아이들과 물러다니며 술래잡기를 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가끔씩 아빠와 함께 극장에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서부 총잡이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다. 그러던 어느 날, 미르코는 밖에서 구슬치기를 하다가 잠깐 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마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걸려있던 사냥총이다. 미르코는 아빠 몰래 만지작거리다 땅에 떨어뜨려 총이 격발되었고, 그로 인해 눈에 파편을 맞게 된다. 실명 위기에 처한 미르코는 그 당시 법에 따라 제노바에 있는 타소니 맹인특수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하지만 미르코는 물론이거니와, 부모님도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함께 뛰어 놀던 동네 친구들과 작별을 하고, 제노바에 있는 특수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 미르코는 간간한 교장선생님과 수녀님들이 계시는 학교 분위기를 처음에는 거부스럽게 느낀다. 하지만 전학 첫 날,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펠리체를 알게 된 후, 펠리체에게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금세 가까워진다. 미르코는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력을 잃기 전 자신이 보았던 세상을 색깔로 설명할 수 있다. 각각의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 기억하고 새로운 친구들에게 그 느낌을 설명해주게 된다. 나무 위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친구 펠리체와 나누는 대화에서 파랑은 자전거를 탈 때 얼굴을 스치는 바람 또는 바다와 같다고 설명하고, 갈색은 나무 기둥을 만져보라고 한다. 또한 빨강은 불, 하늘의 노을과 같다고 설명해준다.

일반학교 수업과는 다르게 특수학교 수업은 독특하다. 계절에 관한 수업을 들을 때는 직접 계절과 관련된 사물을 만져보거나, 녹음기에서 들려주는 설명을 점자판으로 받아 적는 것이다. 또한 수업 시간 외에도 아이들은 장애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화 교환원이나 직조원이 되기 위한 기술 훈련을 위주로 받는다. 그러나 미르코는 점자판을 집어 던지면서 자기는 눈이 보이니까 이런 건 필요 없다고 심통을 부린다. 그러자 미르코의 담임선생님인 줄리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점자 배우기를 거부하는 미르코에게 “음악가들은 연주할 때 눈을 감는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어느 날 줄리오 선생님은 계절에 대해서 조사해보라는 과제를 냈는데, 점자 배우기를 거부했던 미르코는 우연히 발견한 학교 녹음기를 가지고 목소리와 소음, 사물에서 나는 소리만을 녹음해 과제로 제출한다. 교장선생님은 점자로 숙제를 해오지 않은 미르코를 혼냈지만, 줄리오 선생님은 미르코의 재능을 발견하고, 녹음기를 선물한다. 선생님이 선물한 녹음기는 미르코의 잠재된 능력을 빛내 주는 도구가 된다. 소리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미르코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즐거운 놀이가 되며, 이를 계기로 음악 감독의 꿈을 꾸게 된다.

또한 미르코는 학교 관리인의 딸(프란체스카)과 만나게 되는데, 프란체스카는 미르코와 친구들이 시각장애가 있어도 편견 없이 ‘정상인’처럼 대하고 그들은 친해지게 된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

고 프랑코와 치초가 나오는 영화를 ‘보러’가고, 영화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소리로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말하는 사람의 기분은 어떤지를 간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부모님들을 모시고 치르게 되는 학예회를 선보일 준비를 하게 되는데, 미르코와 프란체스카 그리고 친구들은 이야기를 녹음해서 학예회 발표를 하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용과 공주, 왕자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녹음하기 시작하고, 나레이션 뿐만 아니라 배경 음악들도 주변의 물건들을 활용해 직접 녹음한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지만, 결국 교장선생님에게 들킨 미르코는 퇴학을 당한다. 줄리오 선생님은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직업 및 기술훈련만 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학교 앞에서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학교를 개편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학예회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르코의 퇴학으로 인해 할 일을 잃은 아이들은 당황해하고, 줄리오 선생님은 교장선생님에게 필사적으로 미르코를 변호하고, 미르코의 녹음 작업을 학예회 때 공개하자며 설득한다. 교장선생님의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미르코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단순한 맹인 노동자로 길러내는 획일적인 교육 방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줄리오 선생님은 강력하게 피력한다. 결국 미르코의 녹음 작업은 선생님의 감독 하에 학예회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열 다섯 명의 왕자들과 괴물이 사는 성에 갇힌 공주를 구하러 모험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의 소리 연극은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학교가 퇴학시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둘러싸고 학교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된다. 마침내 이탈리아 정부는 1975년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다니는 학교를 폐지하고,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도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텍스트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장애관과 교육 방식이 드러난 장면의 대사 및 지문의 텍스트를 분석한다. 텍스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텍스트는 학자들마다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어진다. Rosenau(1992)는 텍스트를 ‘어떤 사건’이라고 불렀으며, ‘어떤 사건’이란 ‘텍스트가 저자의 소멸인 동시에, 독자의 생장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해석은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황인옥, 2010). Barthes(1977)가 말하는 텍스트는 ‘의미의 생산’이다. 텍스트는 어떤 권위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련의 단어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공간으로서 그 어떤 것도 원작이라고 할 수 없이 다양한 글들이 뒤섞이는 공간이다. 종합적으로 텍스트란 해석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화는 단지 감독의 세계관이 표현된 텍스트로 고정되지 않

고, 사회적 담론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지는 집단 무의식,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이 재현되어 있는 텍스트이다(김현숙, 김수진, 1999).

영화를 텍스트 분석한다는 것은 첫째, 한 사회의 문화적 의미가 어떤 식으로 영화에 재현되고 반영되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박길자, 이미식, 2002). 재현의 과정은 영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기호학적인 의미체계를 배열함으로써 메시지를 생산하게 된다(박길자, 이미식, 2002). 그러므로 영화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징들과 그의 의미들을 분석하여 이들이 의미하고 있는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를 함께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영화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영화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박길자, 이미식, 2002). Stuart Hall에 따르면, “이데올로기는 관념들의 내용과 표면적인 형태를 넘어서는 조건들이 재현되고 체험되는 매체가 되는 무의식적인 범주로 정의되어, 우리의 의식 속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된다(임영호, 1996)”고 하였다. Graeme Tunner(1990) 역시 대중 매체의 이데올로기 작용의 복합성을 인정하면서, 영화 분석을 통한 이데올로기 작용에 관심을 가진다. Tunner(1990)에 의하면 영화의 이데올로기 작용은 “문화에 대한 직접적 진술이나 반영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내러티브 구조 속에 숨어 있으며, 담론 속에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영화는 생산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관객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러티브 안의 이데올로기적 의미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해야 한다(박길자, 이미식, 2002).

셋째, 영화의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다(박길자, 이미식, 2002). 영화가 관객들에게 상영되는 순간, 영화의 의미는 관객들에 따라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Tunner(1990)는 해석의 다의성을 주장하는데, 해석의 다의성이 생기는 이유는 “관객들 사이에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에 따른 ‘선호된 읽기(preferred reading)’ 방식이 존재(임영호, 1996)”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Hall에 따르면, “의미해석을 달리하는 담론들 사이의 의미투쟁이 형성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배적인 담론이 사회적 질서를 재생산한다는 의미에서 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드러내는 것(임영호, 1996)”이라고 하였다.

종합적으로 영화의 역사적 배경, 영화의 스토리 구조, 의미체계, 해석의 다의성, 이데올로기 등에 중점을 두고 영화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분석하였으며 영화의 장면 이름은 본 연구자가 임의로 정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Ⅲ. 연구결과

1. 영화 텍스트 분석 1 :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장애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프란체스카가 미르코를 대하는 장면의 텍스트를 분석하였다.

#첫 만남

(미르코의 관심을 끌려고 미르코에게 무언가 던지는 중)

미르코 : 뭘 원해? 멍청아!

프란체스카 : 뭐하냐, 바보야?

미르코 : 신경 끄셔.

프란체스카 : 그 쿠키 왜 안 먹어?

미르코 : 이걸 드릴 거야. 그럼 수녀님이 옥수수 낱알을 주실 거야.

프란체스카 : 자, 이거 받아! (카라멜을 던짐)

미르코 : 이게 뭔데?

프란체스카 : 카라멜이야. 그걸 수녀님한테 드려. 그럼 또 낱알을 받을걸.

미르코 : (카라멜 냄새를 맡는 중)

#자전거를 타다

미르코 : 여긴 왜 데려왔어?

프란체스카 : 내 자전거를 보여주려고. 어서, 내게 보여주고 싶어. 여기 있다! 근데 타진 못해. 고장 났거든. (중략)

미르코 : (자전거 체인을 만지작거림) 이건 고장난 게 아냐. 체인이 벗겨진 거야. 이걸 뒤집게 도와줄래?

프란체스카 : 그래.

(자전거 고치는 중)

미르코 : 다 됐어, 타러 나가자.

프란체스카 : 너 미쳤니? 말썽 일으킬지도 몰라.

(중략)

(둘이 자전거를 타러 나감)

미르코 : 꼭 잡아, 갈 거니까.

프란체스카 : 정말로? 알았어, 대신 천천히 가.

(프란체스카는 미르코의 눈이 되어주면서 극장에 감)

프란체스카는 미르코가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편견과 선입견 없이 그저 친구로서 대하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실제로 일반학교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이영숙, 김종현, 2007). 하지만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친숙해져서 그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거나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된다는 주장도 있다(Gottlieb & Corman, 1975). 프란체스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수업을 함께 배우지 않지만, 학교 관리인인 엄마와 함께 학교 안에 살고 있으므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여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식은 또 다른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르코는 눈이 보일 때 동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자주 하였는데, 시각장애로 인하여 친구들과 떨어져서 기숙학교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미르코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미르코 라는 한 사람으로 미르코를 대했다.

미르코 : 거의 다 오지 않았어요, 아빠?

빌레리 : 그래, 아가.

(동네 친구들은 들판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중)

(미르코가 그들에게 다가감)

미르코 : 나도 끼워 줄래?

친구1 : 안녕, 미르코! 그래, 근데 마지막에 왔으니까 네가 술래 해야 돼.

친구2 : 근데.. 재는...

친구3 : 개 말이 맞아, 규칙은 규칙이지. 마지막에 왔으니까! 그러니 내가 솔래야.

(미르코가 친구1에게서 눈가리개를 받아서 눈을 가림)

미르코 : (친구들을 한 명씩 잡으면서) 하나.. 둘.. 잡았어!

친구들 : 이건 불공평해! 우릴 속였어!

미르코 : 너도 쉽게 잡아!

친구들 : 보고 싶었어, 미르코!

프란체스카와 동네 친구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르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바라보고 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 나오는 프란체스카와 동네 친구들의 태도와 장애인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장애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영화 텍스트 분석 2 :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제한

여기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교육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오감 및 행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습득이 자유롭지 못해서 학습 및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한경돈, 정희준, 2012).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는 미르코가 병원에서 장애 판정을 받은 후에, 의사가 미르코 아빠에게(빌레리)일반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있다.

의사 : 발레리 씨,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미르코는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빌레리 : (안도하듯이) 네, 피사의 병원에서도 놀라운 일이라더군요.

의사 : (머뭇거리면서) 당신을 오시라고 한 것은.... 미르코를 학교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입니다.

빌레리 : (황당한 목소리로) 왜죠? 애가 전염병에 걸린 것도 아니잖습니까? 사고일 뿐입니다.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의사 : 덕의 아드님은 현재 형체만 볼 수 있습니다. 피사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레리 :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겁니다.

의사와 사회복지사 : (머쓱해하면서 눈빛을 주고받는다)

빌레리 : (확고한 목소리로) 분명 회복될 겁니다. 갠 늘 모범생이었어요. 당신이 안 받아 주면 어디로 보내야 하죠?

사회복지사 : 빌레리 씨, 무척 힘든 일이지겠지만 우리 뜻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그건 위법입니다. 자기와 같은 애들을 위한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의사 : 우린 적당한 학교를 알아볼 겁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봅니다.

(중략)

빌레리 : (화가 난 듯이) 갠 우리가 필요해요. 아기였을 때보다 더 필요하다고요. 어딴지도 모르는 제노바의 학교까지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의사 :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의사가 머뭇거리면서 내뱉는 “당신을 오시라고 한 것은.... 미르코를 학교로 돌려보낼 수 없어서입니다.”이라는 말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과 통합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는 곧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도 나타난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사의 말은 곧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부여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의 제공(황근, 2001)이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통하여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교육의 기회, 즉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자신이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화 속의 기숙학교 교장선생님은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훈련을 배우게 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일괄적으로 모든 아동들은 직조기술이나 전화교환원 훈련만을 받고 있다. 또한 “애가 하고 싶은 게 뭐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냐가 문제입니다.”라는 말은 아동들이 자신의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것을 위법이라고 말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

의 기회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동들이 자신의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직업기술을 배우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식을 제안하려고 한다.

3. 영화 텍스트 분석 3 : ‘오감’을 활용한 교육 방식

여기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오감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한다.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줄리오 선생님이 아이들과 미르코를 가르칠 때 촉각과 청각을 사용하여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그는 시각적인 표상이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문답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장철 외, 2008). 또한 그는 시각계의 손상으로 인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촉각과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한다(한경돈, 정희준, 2012).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은 시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주위 환경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키지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개념을 발달해나간다(장철 외, 2008). 청각은 사물 또는 물체가 소리와 소음을 낼 때에만 거리와 방향에 대한 단서를 주지만, 사물과 물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은 새 소리만 듣고 새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대략 얼마나 떨어진 거리에서 울고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새의 특징은 알지 못한다. 시각과 청각은 중요한 거리 감각이므로, 시각은 모양과 색, 그리고 다른 물체와의 공간 관계를 인식하게 해주지만, 청각은 막연한 단서만 제공해줄 뿐이다(장철 외, 2008).

촉각은 사물 또는 물체의 형체뿐만 아니라 질감, 촉감, 탄력성, 무게, 온도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보다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용기에 담겨있는 것, 불에 타고 있는 것, 눈송이 등은 관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촉각은 물체와 직접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물체에 대한 부분적인 것만 인식하게 된다(장철 외, 2008). 후각 역시 물체 또는 사물의 존재와 거리에 대하여 중요한 단서를 주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장철 외, 2008).

줄리오 선생님 : 솔방울, 나뭇가지, 밤, 말린 과일. 그걸 만져 봐. 솔잎이 어떤지 느껴 봐.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

아동들 : (솔방울, 나뭇가지, 밤, 말린 과일을 손으로 만지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있음)

줄리오 선생님 : 이 솔잎들은 눈이 휘물고 지나가는 겨울내 살아남아야 하지. 난 여러분에게 계절에 관한 에세이를 쓰도록 할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어. 우리가 이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도시, 우리 삶에서 무엇이 변하는지를.

(중략)

줄리오 선생님 : 넌 꽃을 보면 향기를 맡고 싶거나 눈이 올 때 그 속을 걷고 싶진 않든? 그걸 만지고 네 손의 냄새를 맡아 보는 건? 네게 비밀 하나 말해 줄게. 연주자의 연주를 보면서 난 뭔가를 알아차렸지. 그들은 자기 눈을 감아. 왜 그런지 아니? 음악을 좀 더 강렬하게 느끼기 위해서지....(중략)....음악이 마치 육체적인 감각인 것처럼 말이야. 미르코 내겐 오감이 있어. 왜 굳이 한 가지만 이용하지?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듯이, 줄리오 선생님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시각 외의 다른 감각들, 즉 촉각과 후각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지...”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겠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서, 촉각과 청각, 후각의 감각을 사용하여 솔방울, 나뭇가지, 밤, 말린 과일을 탐색하고 있다. 시각을 사용할 수 없으니 솔방울에서 나는 향기, 까슬까슬한 느낌,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으로 이것이 솔방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인간은 정보를 시각으로 90% 받아들이면서 정보를 인식하는데, 시각을 사용하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오로지 다른 감각들만을 이용해서 받아드리려니 얼마나 낯설고 이상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리오 선생님은 시각 이외의 다른 감각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을 뜻하는 말을 한다. “왜 굳이 한 가지만 이용하지?”라는 말을 미르코에게 하면서 시각에만 의존하는 감각보다, 나머지의 다른 감각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경계를 풀도록 해주고 있다. 그러자 미르코는 사계절을 작성하는 에세이 과제에서 점자로 에세이를 쓰지 않고, 펠리체와 함께 녹음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물들의 소리를 녹음하여 에세이(제목 : 비가 그치고 태양이 떠오르네)를 완성하게 된다.

#바람

미르코 : (유리병을 입으로 불면서 바람 소리를 만들어 내는 중)

펠리체 : 이거 들었어?

미르코 : 뭐 거 같아?

펠리체 : 바람, 맞지? 네가 전에 말해준 적 있어. 바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걸 늘 들었거든!

(미르코와 펠리체는 창문 가까이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중, 커튼이 휘날린다)

#벌

미르코 : 벌은 뭘로 하지?

펠리체 : 우리 벌은 못해. 진짜 벌집이 필요해.

미르코 : 알았다! 우리 입술로 할 거야.

펠리체 : 맞아! 우리 뽕벌도 할 수 있어. 들어봐..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소리를 냄)

미르코 : 잠깐 멈춰!

(미르코가 펠리체의 입술 가까이에 녹음기를 갖다 댐)

펠리체 : (입술로 소리를 냄) 봉봉-브르르-웅웅-

#비

(미르코와 프란체스카는 학교 안에서 빗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녹음하고 있음)

(나팔꽃과 잎사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창틀에 빗소리가 떨어지는 소리)

#해바라기

(해바라기 밭에서 해바라기 꽃잎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녹음함)

위의 텍스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미르코는 자연의 소리들을 이용해서 에세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이러한 줄리오 선생님의 교육방식과 미르코가 해온 과제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교장선생님은 아동의 흥미와 재능을 알아차리고 사용하는 것보다, 그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아래의 텍스트가 보여주고 있다.

교장선생님 : 이 모든 소음과 소리가 네게 뭘 의미하는지?

미르코 : 이건 자연의 소리예요.

교장선생님 : 아, 그야 물론이지! 그걸 너만 아는 거네? 누가 그런 특권을 줬지? 학교의 녹음기를 가져다가 그저 재미로 공공재산인 테이프나 망가뜨리라고?

한편 오감을 사용하여 시각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체험활동’과 ‘미술활동’이 있을 것이다. 박영균(2005)은 체험활동의 목적은 “각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적성에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P.3.) 또한 체험활동의 목적은 자연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인간 상호간의 이해를 통하여 자신을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관계개선을 통하여 인간성 회복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창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박혜정, 1997).

이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체험활동은 오감을 사용하여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실에 앉아서 점자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자신의 재능을 탐색하는 것에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체험활동 욕구는 매우 높은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이들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박영균, 2005).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체험활동보다는 교실에서 다양한 감각적 접근을 활용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빛소리, 물소리, 말 발굽 소리 등을 듣거나, 식물의 뿌리와 줄기, 꽃, 나뭇가지 등을 냄새 맡거나 소금, 설탕 등을 맛 보는 것이다. 즉 실제 사물, 살아있는 유기체 등을 사용하여 지식전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과정의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장철 외 10명, 2008).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사물이나 물체를 촉각으로 탐색하여 얻는 개념에는 종합적 촉각과 분석적 촉각이 있다. 종합적 촉각은 물체나 사물의 겉모양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알아보게 하는 방법으로 작은 사물을 탐색하는 데 사용된다. 분석적 촉각은 촉각으로 전체적인 모양을 알아볼 수 없는 큰 물체를 탐색할 때 사용하며, 다양한 부분을 만져서 각각의 부분들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촉각과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나왔던 청각을 사용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교육하는 것을 제안한다.

4. 영화 텍스트 분석 4 :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

여기에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 현장’을 분석할 것이다.

#시위 현장에서 에또레와의 만남

프란체스카 :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해! 엄청 많아! 시위하나 봐.

시위하는 사람1 : 애들아 조심해! 누구랑 왔니?

프란체스카 : 우리끼리 왔어요.

(중략)

프란체스카 : 아저씨 부모님은 아저씨 학교에 안 보내셨어요?

에또레 : 내가 이 길을 어떻게 알 거 같냐? 거기 10년 동안 있었지.

미르코 : 도망친 적 없으시죠?

에또레 : 응. 나이가 다 차서 거길 떠났어. 교장선생님 애긴 관두자!

미르코 : 지금은 뭘 하시는데요?

에또레 : 하고 싶은 걸 하지. 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제철소의 전화 교환원이기도 해.

(중략)

에또레 : 난 너처럼은 안 봐도 돼. 난 원하는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거든.

미르코 : 뭐 같은데요?

에또레 : 그게.. 뭐 같냐면.. 매우 높고 넓고 화려하지. 식탐 많은 애들을 위해 만든 빵 같아.

미르코 : 상상력이 아주 끝내주세요!

#줄리오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대화

줄리오 선생님 :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 보셨겠죠?

교장선생님 : 시간이 별로 없네. 낭비할 시간 없어.

줄리오 선생님 : (열정적인 목소리로) 이젠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개가 좀 지나친 건 알지만 자기만의 독창적인 방식을 지녔습니다.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말하는 방식요. 갠 전혀 달라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 자넨 이 학교가 100년도 더 된 걸 알고 있나? 여기서의 삶은 항상 매우 부드럽게 가고 있지. 어떤 문제도 없어. 왜 그런지 아나? 여기만의 규칙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이들에겐, 그들은 바보에 시대에 뒤쳐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 애들이 학교를 마친 후에도 바깥의 삶을 살도록 허용했어.

줄리오 선생님 : 저 애들은 볼 수 없죠. 사실이긴 하지만 아들은 살아있어요! 열정과 상상으로 가득 찼다구요! 애들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한다면 우린 애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 애들한테 상처를 주라고?

줄리오 선생님 : 왜요? 그것도 교육의 일부예요.

교장선생님 : 자유는 사치야. 우리 같은 맹인은 엄두도 못 내지.

#시위 현장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중)

시위하는 사람들 : 카쓰니 학교 책임자는 물러나라! 학교를 개편하라!

(노동자와 학생 투장 연합)

#수녀와 교장선생님의 대화

수녀 : 교장선생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매우 화나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 도대체 저들이 원하는 게 뭐래요?

수녀 : 이 도시의 모든 학생들이 투쟁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제철소 노동자 대표단도 있는 것 같구요.

교장선생님 : 뭇 때문에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거요?

수녀 : 우리가 퇴학시킨 학생들을 재입학시키지 않으면 제철소를 닫을 거랍니다.

에도레는 기숙학교에 10년 동안 있었고 나이가 차서 학교를 떠났으며, 제철소의 전화 교환원으로 일함과 동시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직조공과 전화 교환원이라는 기술만 훈련시키는 학교를 개편하라고 외치고 있다. 수녀와 교장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오로지 학교를 마친 후에 사회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기술 훈련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선생님은 “자유는 사치야. 우리 같은 맹인은 엄두도 못 내지.”라고 말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교장 선생님의 말 뒤에는 ‘나도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라는 마음이 숨겨져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자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에서 나온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술 교육이 아닌,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나 활동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영화 <천국의 속삭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오감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인문학인 장애 교육과 문화적 산물인 영화는 학문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에 있지만, 문화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오감’을 활용한 교육을 제시한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오감 중에서 시각을 제외한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발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영화 속에서도 촉각, 청각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주인공 이러한 오감 교육을 통하여 자신이 청각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훗날 유명한 음향 감독이 되었다. 이처럼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 자신들의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오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감 교육을 통하여 주인공처럼 자신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아동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아동은 후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조향사 같은 후각적인 능력을 이용하는 직업을 택할 수도 있다.

시각장애를 가졌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단순한 행동만 반복하는 노동보다는, 그들도 개인적인 능력과 관심, 흥미 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기회 제공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장애관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경제와 사회로의 투입 및 자립, 더 나아가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영화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영화 <천국의 속삭임>을 시청하였고, 장애 이미지에 대한 문헌과 학술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시사점을 얻어 바람직한 장애관은 무엇이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영화 텍스트 분석과 더불어 국내·외 논문 및 저서, 연구 자료들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방식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방식을 찾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한 결과, 영화 속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프란체스카는 미르코를 포함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편견과 선입견 없이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자가 지향하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실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지양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 즉 일반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에 비해 장애로 인한 오감 및 행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습득이 자유롭지 못하여 학습 및 사회활동에서도 불편함이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한된다는 것을 영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기회를 법으로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들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방식, 즉 오감교육이 제안되었다.

셋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오감’을 활용한 교육방식을 제안하였는데, 본 연구는 시각적인 표상이 없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대하여 문답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과 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실제 경험을 통한 학습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또한 영화 속에 나타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시위 현장을 분석하여,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

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술교육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성과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이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원하는 일과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와 국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와 영화 그리고 교육 방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와 관련된 연구에 인식론적 변화를 제시하고, 장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는 데 활용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영화 작품에서 재현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와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장애 교육 부분은 앞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을 가르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연구는 통합교육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영화 속에서 미르코가 시각을 잃기 전에 보았던 자연 환경과 색깔들을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펠리체에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처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직접 생생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오감교육을 접목시킨 통합교육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 및 독립성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으며(이덕순, 2009),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아동들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고 오감으로 학습하면서 전통적이고 지배적인 장애관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애관을 형성할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전체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방식을 제안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후속 연구는 이 보다는 더 세부적으로 시각장애 중에서도 여러 종류로 진단이 내려지는 장애명에 따라서 어떤 오감을 사용해야 이들의 잠재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혹은 시각장애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숙. (2009). 경도장애학생의 교수적 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합학급 교사와 특수교사의 특성 및 협력 변인 비교. 한국특수교육학회, 44(2), 231-258.
- 강진숙, 김동명. (2019). 장애인 관련 영상제작자 및 활동가들의 '소수자-되기'에 대한 미디어 비오그라피 연구- 미디어의 장애인 재현과 제작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보, 63(1), 286-324.
- 권명옥, 서화자. (2004). 장애인관의 발달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0(3), 339-365.
- 김미정. (2000). 한국영화에 나타난 장애인의 자아의식과 차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대학원, 대구.
- 김영린. (2003). 시각장애학교 미술교과 수업실태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카톨릭교육대학원, 경기.
- 김용임. (2004). 한국 영화에 재현된 가족이데올로기의 해체적 양상과 대안적 형태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정현, 이태훈. (2003). 시각장애학생의 효율적인 학습환경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4), 57-73.
- 김현숙, 김수진. (1999). 영화 속의 모성, 영화 밖의 모성.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52, 231-387.
- 김홍주, 박원희. (2003). 한국영화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논총, 12, 1-27.
- 박길자, 이미식. (2002). 영화 텍스트 읽기와 사회과 수업. 시민교육연구, 24(2), 43-64.
- 박순희. (2005).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 박순희. (2006). 시각장애교육 교사 자질 기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0(4), 135-164.
- 박은송, 한성희. (2008). 시각장애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 연구 경향. 시각장애연구, 24(1), 89-108.
- 박홍곤. (2017). 영화에서 재현되는 시각장애인의 이미지와 성차 - 2000년대 이후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4, 423-452.
- 서진환, 김정은. (2015). 영화 속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 연구 -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 사회복지연구, 46(2), 177-204.
- 안은자, 윤정란, 조원일. (2020). 영화 <나의 특별한 형제>의 장애인관에 나타난 발달장애인과 신체

- 장애인의 공생상 - M. Prestley (1998)의 다중 장애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발달장애연구, 24(2), 45-70.
- 오혜정, 황도순, 박현옥. (2006). 장애유아 언어와 관련된 국외 실험연구의 내용분석. 특수교육저널 『동이론과실천』, 17(4), 213-235.
- 우충완. (2019). 문학적 장애재현과 담론의 한계와 가능성 - 장애학적 관점에서 고정욱의 장편 동화 다시 읽기. 『동화와번역』, 37, 85-119.
- 유민수, 김영일. (2010). 시각장애학교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태 및 개선 방안. 시각장애연구, 26(2), 01-25.
- 이규태. (1981). 장애자복지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현대사회와 장애자복지』.
- 이덕순. (2009). 시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지원 방안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44(2), 93-119.
- 이덕순. (2010). 시각장애학생 교과교육의 쟁점과 한계. 시각장애연구, 26(3), 01-24.
- 이미선, 김기창, 김정현, 김호연. (2010). 시각장애아교육 개선 방안 연구 - 조기발견, 진단평가, 배치, 시각 중복장애아 교육을 중심으로 -. 시각장애연구, 26(4), 285-314.
- 이선자. (2007). 영화 속의 장애인 이미지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7, 77-111.
- 이해균, 임안수, 이우관. (2006). 저시력 교육.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정기철. (2013). 오감을 활용한 글쓰기. 국어문학, 53, 361-384.
- 정기혜, 김용하, 이지현.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이탈리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지훈, 이영미. (2009). 시각장애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과 조망 - 「시각장애연구」 학술지를 중심으로 -. 시각장애연구, 25(2), 121-139.
- 조홍중, 전이상. (2001). 장애인의 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성차를 중심으로 -. 특수교육저널 『이론과실천』, 4(4), 379-402.
- 황근. (2001).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대상 방송에 대한 평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 대상 방송 TV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 71-90.
- 황인욱. (2010). 영화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본 섹슈얼리티와 가족 <바람난 가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14, 109-136.
- Barthes, R. (1977). Image, music, text(trans. S. Heath). London: Fontana.
- Ingstad, B., Reynolds, S., & Whyte. (2011).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서울: 그린비.

- Barnes, C. (1997). Principles for media representation of disabled people. *The British Council of Organisations of Disabled People*.
- Barnes, C., Oliver, M., & Barton, L. (2017). 장애학의 오늘을 말하다. 서울: 그린비.
- Donaldson, J. (1981). The visibility and image of handicap people on television. *Exceptional Children*, 47, 413-416.
- Elliot, T., & Byrd, E. K. (1983). Attitude change toward disability through television portrayal.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14(2), 35-37.
- Girotti, F. (1998). Welfare State: storia, modelli e critica, Roma: Carocci
- Tunmer, G. (1990). British Culture Studies: An introduction (김연중 역). 서울: 한나래
- Hall, S. (1996).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슈트어트 홀 선집 (임영호 역). 서울: 컬처북.
- Haller, B. (1997). Image of Disability in News Media: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 Longmore, P. K. (1987). Uncovering the Hidden Histor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Reviews in American History*. 15(3), 355-364.
- Nelson, W. J. (1994). Disability trends in the United States: A national and regional perspective. *Social Security Bulletin*. 57(3), 27-41.
- Oliver, M. (1990). Politics of Disablement. *Macmillan Education LTD*.
- Garland-Thomson, R. (1997). 보통이 아닌 몸. 서울: 그린비.
- Rosenau, P. (1992). Modern and Post-Modern Science: Some Contrasts. *Research Foundation of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15(1), 49-89.
- Shakespeare, T. (1999). The Sexual Politics of Disabled Masculinity. *Sexual and Disability*, 17, 53-64.
- Shakespeare, T. (2006). 장애학의 쟁점. 서울: 그린비.

원고접수 : 2021. 11. 15.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5.	게재확정 : 2021. 12. 20.
----------------------	------------------------	----------------------

Abstract

A desirable View of Blindness and The Need for the Roles of Senses in School Curriculum : A focus on the movie 〈The Whispering of Heaven〉

Moon Cho Bi*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s in which Christiano Bortone's 〈The Whispering Heaven〉 (2009) examines an ideal educational method for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proposing a more positive view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in the eyes of the public. This study methods are to watch the movie 〈Whispers from Heaven〉 with a focus on movie text analysis, and to analyze the literature and academic papers on disability images. The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attitudes of children without visual impairment toward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Francesca, who does not have a visual impairment in the film, accepts her friends with visual impairments, including Mirco, as they are.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treated with a positive perspective without prejudice. This is considered to be a positive and desirable view of obstacles that this researcher is aiming for. For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have practical contact with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nd appropriate education to avoid the traditional and dominant ideology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ill be required. Second,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have limited access to education compared to children without visual impairment. In other words, compared to children without visual impairment,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re not free to acquire infor

* Master's degree, Department of Christianity,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tion due to limitations in their five senses and behaviors due to their disabilities, so they have inconvenience in learning and social activities, and they may not be able to receive education. It was also confirmed in the film that opportunities were limited. 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it is unreasonable to deprive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by law. Therefore, this researcher suggests an appropriate educational method, that is, education for the five senses. Third, an educational method using the 'five senses' was proposed for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This study teaches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who do not have visual representations about all external objects only through questions and answers. Rather, it suggests learning through actual experiences using art and experiential activities. Lastly,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otest scenes of workers and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in the movie, and analyzed the needs of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which are as follows.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 want to enjoy 'freedom of expression', and what they want is not technical education, but freedom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and characteristics, and the work and activities they want, just like people without visual impairment. is an opportunity to learn Thus,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to think once again about the educational method of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nd it is a practice that aims to lead not only to research, but also to the possibility that it can be used in the educational field of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A realistic effort must be made. In addition,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revitalization of disability-related research, and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by people in the field of teaching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

Keywords : Cristiano Bortone, The Whispering of Heaven, blindness, sense, education, new definition of disability